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4차 국가 테러대책위원회, 7.27(목) -

-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임.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 기조를 가짐.
- 최근 독일 G20회담에서도 대통령께서는 ‘테러와 폭력적인 극단주의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. 강력한 대응의지의 천명이 필요하다.’ 이렇게 언급하신 바 있음.
- IS가 최근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는 하나, IS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, 아시아에 침투해 테러공포는 결코 줄어들지 않음.
- 특히 IS가 우리 대한민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목한 바 있어, 테러로부터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려움. 최근에는 우리 해외 공관도 테러의 대상인 것 같은 첩보가 입수돼 테러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시대가 됐음.
- 테러는 예방이 최우선임. 예방을 위해선 정보수집이 관건일 것임. 오늘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관련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람.
- 특히 200일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이 모이는 무대이기 때문에 테러대책은 더욱 공고해져야 함.